

결혼식장서 신부 불륜영상 튜 신랑

지난 26일 중국 푸젠성의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불륜 동영상 공개돼 식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찾도록 돕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을 승낙 받았다.

얼마 후, 신랑은 신혼집을 수리하면서 설치한 감시카메라에 담긴 신부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신부의 불륜 상대는 다른 아닌 신부의 형부였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신랑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감정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의 언니는 임신 6개월이었다.

이날 예식은 어느 결혼식과 다를없이 들 흐르듯 진행되고 있었다. 주례에 앞서 사회자는 신랑과 신부의 '성장 동영상' 을 감상하겠다는 말을 전했고 행복한 표정의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섰다. 바로 그때,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 대신 신부의 낯 뜨거운 불륜 동영상 공개됐다. 그러자 신랑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며 신부의 어깨를 밀쳤고, 신부는 신랑에게 부케를 집어 던지면서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몸싸움을 벌이는 신랑과 신부를 하객들이 끌어말리고 신랑의 아버지는 욕설을 퍼붓는 촌극도 연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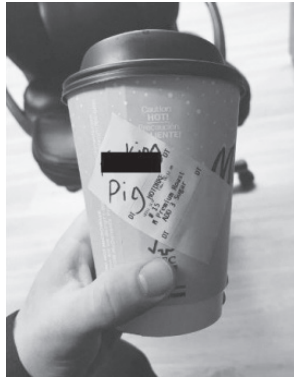
신랑과 신부는 2년 전 연인 관계로 발전해 6개월 전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랑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신부의 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신랑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마련하고, 신부 오빠의 일자리를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당장이라도 파혼하고 싶었지만, 복수를 위해 예식 날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식장에서 신부와 그녀의 형부의 불륜 사실이 담긴 5분 분량의 동영상을 폭로한 것이다.

사건 이후 신부는 신랑에게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며, 신랑은 결혼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X같은 돼지" 경찰관 커피컵에 욕 쓴 맥도날드 직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했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써놓은 커피컵을 받은 한 경찰관의 사연이 논란이다.



페이스북에 이 경찰관이 받은 커피잔의 사진을 공유했다.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은 5년간 헌병이었던 육군 퇴역자로 두 달 전 우리 경찰서로 왔다." 면서도 "그는 자신의 커피 컵에 그런 욕설을 쓴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고 전했다.

또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가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며 초등학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참여했었다." 고 말했다.

지난 28일 캔자스주 헤링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한 맥도날드 매장에 들려 프리미엄 로스트 핫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주문한 커피를 받아 든 그는 자신의 커피잔에 "X같은 돼지" (f**king pig) 라는 욕설이 검은색 네임펜으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매장의 매니저에게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사과의 뜻으로 박막과 라지 감자튀김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이번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문제의 욕설을 쓴 직원을 찾아내 해고하고 해당 지점은 경찰관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경찰서 출근 후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경찰서장은 자신의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속옷만 훔치던 절도범의 굴욕



여자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던 멕시코의 변태 남자가 굴욕적인 응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멕시코 소노라주 오레곤 주민들은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자 속옷을 훔치던 남자를 현장에서 검거, 직접 응징했다.

주민들은 남자의 옷을 모조리 벗긴 후 절도범에게 물매를 퍼붓고 가로수에 꽂꽂 묶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가슴과 허리 등 신체 주요 부위엔 테이프를 여자 속옷을 붙였다. 절도범이 주민들에게 붙잡혔을 때 가지고 있던 훔친 여자 속옷들이다. 가로수 머리 위쪽에 남자의 실명과 죄명을 적은 종이 팻말을 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절도범이 붙잡힌 지역에서 그간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자 속옷이 사라지는 사건이 수십 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변태 절도범이 있다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수사엔 영진전이 없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여자 주민은 "경찰이 신고만 접수할 뿐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며 "여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붙잡힌 남자는 꼼짝없이 그간 지역에서 발생한 여자속옷 절도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다. 한 주민은 "남자가 붙잡혔을 때 이미 다른 곳에서 훔친 여자속옷을 갖고 있었다." 며 "이것만으로도 그간 발생한 사건의 주범으로 남자를 특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물매를 맞고 축 늘어진 채 가로수에 묶여 있던 남자는 뒤늦게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머리에 집중 구타를 당한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자가 회복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에선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남자가 죄를 지었지만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안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자를 응징한 건 잘한 일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